

PEOPLE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담양군-영광군 고향사랑기부 상호 참여 '상생'

담양군과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양 지자체 산립 부서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담양군 산림정원과, 영광군 산림공원과 총 32명 직원이 참여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 320만원을 기부하며 유대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장윤정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영광군과 함께한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두 지자체 간 따뜻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 맞춤형 답례품 개발, 기금 활용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기부 문화 정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수산업경영인회 합평군지회 나비축제 수익금 성금으로 기탁

합평군 수산업경영인회 합평군지회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18일 합평군에 따르면 수산업경영인회 합평군지회가 제27회 나비대축제 기간 축제장 내 음식점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상의 수산업경영인회 합평군지회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 취약계층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나비대축제 기간 관광객에게 지역 수산물로 만든 양질의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만족감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 일부를 이웃을 위해 환원해 준 수산업경영인회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합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남새마을금고 '가정의 달' 효사랑 나눔행사

광남새마을금고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효사랑 나눔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수철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지역 내 27곳 경로당을 방문, 카네이션과 떡을 전달하고 생필품을 기탁했다.

최수철 이사장은 "ESG경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전남인평원 “재능있는 지역 청소년 꿈 지원하겠다”

목포아동원서 청소년 50여명 참여…첼로 등 합동연주회 현장 멘토링 세션도…올해 1만여명 인재 발굴·육성 계획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범희승)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목포아동원과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연주와 현장에서의 멘토링 세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과 꿈을 향한 동기 부여의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범희승 원장이 직접 바이올린 연주자로 참여했으며, 2019년 으뜸인재로 선정됐던 첼로 정민호 학생과 함께한 합주는 청소년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했다.

범희승 원장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청소년의 예술적 감성 향상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인평원의 인재키움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업 정보 제공·취업 연계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또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인 '청년을 잘지나?' 멘토·멘티사업 등 자립준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첼로를 연주한 정민호는 자립준비청년으로 2007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7년간 목포아동원에서 생활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첼리스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2019년부터 진행된 '전라남도 인재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목포아동원에서 청소년 50여명이 함께한 '재능있는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한 합동 연주회 및 멘토링 행사'를 개최했다.

육성 고속도로' 사업의 일환인 으뜸인재에 3년 연속(2019~2021년) 선발돼 음악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돋보였다. 현재 더 나은 첼리스트 꿈 실현을 위해 미국 콜럼비아 스쿨유학을 준비 중이다.

전남인평원은 '전라남도 인재육성 고속도로' 사업을 통해 올해 1만여 명의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한·중 인사이트포럼 ‘성황’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 등 참석 “기업간 협력…상생관계 발전 노력”

'한·중 인사이트포럼'이 최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100여명의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회장 이경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와 중앙회 신경숙이사장, 임흥곤 회장 등이 함께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동행하는 것은 기회와 동행하는 것이고, 중국을 믿는 것이 내일을 믿는 것이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한·중 양국 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도모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



'한·중 인사이트포럼'이 최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100여명의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광주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뒤이어 특별연사로 나선 황황 주광주중국영사는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외국기업의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전망있는 투자 목적지"라는 말을 전했다.

중앙회 신경숙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우리 모두의 만남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임흥곤 중앙회회장은 "중국의 발전은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 기업에게는 위기와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경보 광주지회 회장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대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회원들끼리 더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회원들을 독려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안유화 중국전문가 교수는 "미·중 갈등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열강을 통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안 교수는 "개인과 기업은 시대적 운명을 이기지 못한다"고 전제한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전문직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는 2006년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회단체로 전국 12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민간교류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가족돌봄청년 지원

광주 남구 거주 10명에게 후원금 2000만원 전달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본부장 정병원)는 광주 남구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월드비전은 남구 복지관과 학교, 행복복지센터 등의 협력기관으로부터 98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추천받아 1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꿈꾸는아이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이번 전달한 2000만원을 통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진행, 남구 청(소)년 10명에게 생계, 돌봄, 미래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지원에 나선다.

정병원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장은 "남구와 함께 가족돌봄청소년들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부양가족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지지 체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드비전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지원, 위기아동지원, 식생활취약 아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동의 풍성한 삶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시북구새마을회, 급수봉사 광주시북구새마을회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물과 음료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급수봉사를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동구, 재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광주시 동구(구청장 임택)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 가정의 달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재가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들이'를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